

**로버트 바노이 (Robert Vannoy), 주요 선지자, 강의 27-에스겔 3장**

**에스겔 36-37장 - 마른 뼈와 두 개의 막대기, 예언/성취**

에스겔 33장 -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에스겔 33장 22절에 “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로 오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 에스겔 3장에는 그가 잠잠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이제 그가 하는 일은 미래의 축복에 관해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추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포로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임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 내가 그렇게 말했지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태도로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적합니다.

문맥에 따라 에스겔 36장의 구절 선택(복원)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34 장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살펴봅니다. 한 섹션에서 몇 가지 선택적인 부분을 다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36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긴 장이지만 확실히 눈에 띄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25-27

절입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니 너희가 정결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게서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를 감동시켜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을 지켜 지키게 하겠다 .”

자, 여러분이 문맥에서 분리된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새로운 탄생에 대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탄생에 대한 설명이라고 거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생과 거듭남과 관련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문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24절과 28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25-27절 세 구절 주위에 거의 괄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28절에서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의 영을 그들 안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설명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가? 주석가들과 함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주석가들이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의 참고문헌에서 우리는 로마 숫자 III: B. 1., 페이지 7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덜란드 주석가인 DCH Aalders의 에스겔 주석 2권의 첫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글은 네덜란드어로 쓰여졌지만 여러 면에서 매우 유용한 해설입니다. 다음은 Aalders가 194페이지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함께 성취된 풍성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와 함께 특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도덕적, 종교적 향상이 묘사된 관점의 총체적인 전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책을 받아야 했던 우상 숭배 행위는 종식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선지자들.” 알더스가 제안한 것은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땅으로의 귀환을 강조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36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염려하고 당신을 호의적으로 보살펴 줄 것입니다. 너는 갈고 뿌려질 것이며, 내가 너 위에 올라타는 사람,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의 수를 많이 하리라. 도시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폐허는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네 위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늘리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예전처럼 사람들을 네게 정착시켜 너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 위에 다니게 하겠다. 그들은 너를 차지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다시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자녀를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며 네 백성에게서 자녀를 빼앗는다 하리니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네 나라로 자식을 없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방의 비방을 듣지 않게 하여 민족들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이제 여러분은 특히 그 부분의 마지막 몇 구절, 예를 들어 14절이 가나안 땅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삼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 이스라엘 자손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악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땅을 정탐하러 나갔던 정탐꾼들이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탐지한 땅이 그 땅 거민을 삼키느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체구가 아주 컷습니다 .” 보라, 정탐꾼들은 패할까 두려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였느니라. “우리가 탐험한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킨다 .” 내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여기 에스겔서에서 땅이 더 이상 사람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네 나라로 자식을 없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의 비방을 듣지 못하게 하여 민족들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외국인에게 정복당하거나 침략당하는 영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문맥으로 가면 에스겔서 36장 29절을 보시고 이어서 29절에 “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곡식을 불러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에게 기근을 초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이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죄와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욕을 당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 성읍을 다시 세우리니 황폐한 곳을 재건하리라 ”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주목해 보십시오. “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 성읍을 다시 세우리니 황폐한

곳이 재건될 것임이니라. 그 황폐한 땅은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 황폐하게 놓여 있는 대신에 경작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황무지였던 땅이 에덴동산처럼 되었구나. 황폐하고 황폐하고 파괴되었던 성읍들이 이제는 견고한 성벽을 이루고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너희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며 황폐한 것을 다시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이같이 행하여 예루살렘에 그 백성으로 양 떼 같이 많이 하고 제사 드릴 양 떼 같이 많이 하리라 지정된 절기. 그리하여 폐허가 된 도시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나는 에스겔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시점, 즉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하는 시점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 교회 또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포로 생활에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일부 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언급된 모든 세부 사항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곳, 특히 36장 14절을 읽을 때 땅이 더 이상

사람을 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5절을 읽어보세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도다. 폐허가 된 도시의 황무지가 요새화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가나안 상황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땅에는 혼란이 계속되었고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묘사한 마카베오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가 건설되지도 않았고 사람이 사는 황폐한 곳도 없었으며 땅도 에덴동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읽으면 문맥상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의 핵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중생의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시작에 대한 설명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취를 추구하는 곳입니까? 36장 25-27절은 교회의 시작에 대한 예언인가? 그렇다면 컨텍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이스라엘 나라를 대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까? 미래의 이 때에 그 나라는 재건될 것이며 유대 민족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제가 언급한 36장 12절부터 15절까지, 33절부터 38

절까지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적절한 성취를 찾을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25-27절의 성취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땅으로 돌아가라는 강조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유일한 선택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이 예언이 미래에 성취될 것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유대 민족이 미래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땅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Ellison - 교회와 새 언약(렘 31-34장) 인용문 50페이지를 보십시오. HL Ellison이 쓴 Ezekiel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문 50페이지, 페이지 후반부, 129~130페이지도 살펴보세요. 그는 이 구절에 대해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의 마음 속에 자라났을지도 모르는 질문을 생각해 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사실 에스겔은 이 장들에서 교회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한, 그가 개종하여 교회 회원이 될 때 이 약속은 그에게 영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 36장 24~27절과 예레미야 31~3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심하거나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34장은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25절, 26절, 27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두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든 간에 그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llison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심하거나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취는 우리에게 대한 성취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앞의 구절, 즉 에스겔서 구절이 신약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자, 즉 예레미야 31장 구절은 마가복음 14장 24절과 평행선 뒤에 있으며 히브리서 8장 8-12절과 10장 1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구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성보다는 설명의 관점에서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교회가 약속을 누리는 동안 약속이 소진되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관”의 문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정확히 약속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구절이 우리가 어떤 축복에 참여했음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취보다는 설명의 관점에서 주어진다. 즉, 교회가 약속을 누리는 데 지쳤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확히 설명된 내용을 즐깁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아래서 맺어진 약속이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새 언약에서

성취되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약속하는 언어가 문자 그대로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언적 약속의 상징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원래의 청중이 의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고, 따라서 많은 현대 예언 해석의 지독한 물질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화화는 영적인 과정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해설자 자신의 견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51페이지 상단에 “그가 전적인 비중을 둘 수 없다면” - 저는 이것이 좋은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36장에 있는 변화된 이스라엘 땅과 3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활에 대해 전적인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 해석자는 교회를 위해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그림에서 추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36장 25-27절에 묘사된 중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36장의 나머지 부분을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영성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으로의 귀환이 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변화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활에 온전한 비중을 둘 수 없다면, 주석가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를 위해 그림 속으로 추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옛 백성과 구원받은 새 백성, “온 이스라엘” (로마서 (고전 11:26)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하여 (겔 36장과 렘 31장) 거기에는 어떤 연속성과 어떤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나 나는 그 땅으로의 복귀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존재할 상황, 즉 도시를 재건하고, 에덴동산처럼 되고,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그의 강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 단순히 이것이 교회의 예언이라고만 말하면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즉, 그가 제안한 대로 예레미야 31장이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인용될 때 성취보다는 설명의 관점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이 말은 교회가 약속을 누리는 동안 약속이 소진되었다는 암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즐기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땅으로 돌아가는 맥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교회가

누리는 평화의 축복의 일종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문맥상 여기 에스겔 36장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이 구절 과 매우 유사 하지만 바로 다음 35절에서 -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해를 낮에 비추게 하시고 만물을 정해 놓으셨느니라” 달과 별을 밤에 빛나게 하며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지르게 하는 자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규례가 내 목전에서 없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보다 먼저 한 나라가 되리라 .’”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존재를 해와 달의 창조 묘사와 연결시키시며 때와 날과 계절과 연도를 측량하실 수 있게 하신다. 날이 있는 한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것입니다.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위로 하늘을 측량하며 아래로 땅의 터를 측량할진대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한 일을 인하여 내가 다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사물의 맥락은 매우 강력하며,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히브리서가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고 말씀하실 때 친히 확증하신 것처럼 교회로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묘사된 내용은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그 구절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예측된 것은 아직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즐긴다. 그러나 예언적 성취보다는 묘사의 관점에서 말이다.

신약의 Jer. 31과 에스겔. 36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여기에 예언이 있고, 여기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 어딘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교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예레미야 구절을 인용할 때, 그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이 아니라 묘사라는 관점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인용되지 않은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 설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장래에 무엇을 누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거기에 묘사된 바로 그 것들을 즐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설명 측면에서 예레미야 구절을 인용한 것에 근거하여 신약성경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기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측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세한 선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타당한 구별인 것 같습니다.

3 옵션      인용문의 51페이지를 보면 J. Barton Payne의 에스겔 36장 구절에 대한 *성경 예언 백과사전* 에서 몇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이것을 흥미롭게도 망명에서 돌아온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에스겔 36장의 이 부분은 포로 이후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26절과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서 유다의 우상 숭배 이전에 대해 주목하고, 이어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BC 문제로 엄격히 동일한 것을 제거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포로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모든 우상에게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111쪽 이상 - “하나님은 어둡고 먼 미래가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날에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안에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성은 문맥을 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면 33b절은 어떻습니까? “

너희가 성읍들에 거하여 건축되리라” , 36장 35절에는 “황폐한 자가 에덴동산 같이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걸로 무엇을 합니까? 그는 35절이 과장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땅이 에덴동산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음 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통치하는 성읍들이 요새화되고 사람이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성취는 ... 회복 중인 유대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글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텍스트에 대해 절대적으로 독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과장법에 호소하는 것이 에스겔 36:25-27과 같은 더 큰 앞뒤 문맥을 정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1)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 2)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대로 영성화하는 것, 또는 3) 미래의 성취와 실제 땅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교회가 구체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25-2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에스겔 37장 마른 뼈와 두 막대기의 표징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장의 처음 10절은 익숙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37장에는 미래에 관한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4절의 마른 뼈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흑인 영적 사고방식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

영덩이 뼈는 허벅지 뼈에 연결되고, 허벅지 뼈는 다리 뼈에 연결됩니다.”

등등.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 개의 막대기가 합쳐진 표시인 두 번째 부분에 관한 영적인 노래를 모릅니다.

알 더스는 36장에서 행한 일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듯이 마른 뼈와 두 막대기에 대한 예언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실현된 조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36장에서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37장에서도 발생합니다. 본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37장, “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시며 뼈가 가득했어요. 그가 나를 그 가운데로 이리저리 인도하시매 내가 보니 골짜기 바닥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고 물으셨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가죽으로 덮을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며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보이고 피부가 덮였으나 그 속에 숨이 없더라



. 그러자 그가 나에게 '호흡에 대해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살해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가 내게 명하신 대로  
 대언하였느니라 그리고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그들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그러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넣어 너희가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그제야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의 첫 번째 예언이니라  
 .

에스겔 37:1ff -- 두 막대기에 대한 예언      그리고 37장 15절 이하에는  
 두 막대기가 합쳐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나무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라라 쓰라" 그리고 또 다른 나무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라고 쓰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너희 동포들이 너희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나무 막대기 하나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네가 쓴 막대기를 그들의 목전에서 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갔던 나라들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 땅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한 임금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도 않고 두 나라로 나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우상과 가증한 형상과 그 모든 죄악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법을 따르며 내 율례를 삼가지킬 것이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수를 늘리며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리라. 내 처소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 때에야 열방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되리라.”

Aalders의 “영적” 접근 방식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Aalders는 이것이 망명으로부터의 대가로 성취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12절에 대한 주석에서 20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망명 생활을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유배된 곳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분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신 줄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죽은 자 곧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15-23절에서 두 개의 막대기는 “15-23절에서 두 막대기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는 이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종단을 강요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내 종 다윗에 대해

언급하는 24절부터 28절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망명에서 돌아온 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래서 그는 23절을 통해 두 번째 예언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7장 24절부터 28절에 관하여 알더스는 “그것과 두 나무 막대기의 상징적 행위 사이에는 매우 느슨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는 몇 페이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메시야의 축복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생활하는 것으로 옛 경륜의 언어로 선포됩니다. 24b절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며 자녀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자손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세우다 ” 는 26절입니다. “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수를 늘리며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리라 .” 그는 이 모든 것을 낡은 경제의 관점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4-28절에서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적이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llison: 현대 이스라엘의 귀환 그렇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정신이 필요합니다 . Ellison의 51페이지 인용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가 매우 말랐습니다. 망명에서 돌아온 것은 국민 생활의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만나는 것은 국가라기보다 종교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BC 140-63년의 단명한 하스몬 왕조 시대에도 유다의 대다수와 비슷한 것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Macc 1서에 명시된 대로 백성이 일어나 그들을 다스리는 신실한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제사장 시몬에게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4:41 다윗 집의 살아 있는 연장자에게로 향하는 대신에.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다윗 계통의 연합 국가로서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 패턴은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랍비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존재는 언제나 힘들고 쓰라렸지만, 1879년 독일에서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훨씬 더 끔찍한 장이 시작되었고, 이는 러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 전통적인 정통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핵심까지 흔들렸지만, 이 흔들림을 통해 새로운 의식이 탄생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기원전 63년 이래 처음으로 독립된 유대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Ellison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을 주목하십시오. 루아흐 (영, 호흡, 바람) 의 모호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과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셔야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 땅으로 돌아갈 때 참된 영적 생명을 주시는 일이 뒤 따릅니다. 이는 36장 24절-36절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28. 37장 14절과 36장 27절의 유사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장 14절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너희를 그 안에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땅. 에스겔 36장 27절은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를 감동시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율례를 지켜 지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 충격이 이스라엘을 지나갔고, 비록 그 땅 밖에는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적어도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그는 의식적으로 국가적인 의미에서 그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하나님의 회의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멀지 않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고한 우화주의자와 영성주의자가 어떻게 이곳에서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유다에 합류한 '이스라엘'의 소규모 부대도 어떤 의미에서도 성취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슨이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일이나 교회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성취될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테일러, 에스겔 36장 - 말세의 메시아 왕국     이제, 인용문 53페이지에 있는 존 B. 테일러의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Taylor는 InterVarsity의 Tyndale Commentary 시리즈에 대한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예언의 성취는 올바른 주석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항상 두 번째로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7장 21~28절에 나오는 설명은 미래 지향적이다.”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십시오. 특히 24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다윗 왕에 대해 말합니다.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이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흩어진 곳에서 모일 것이다(21절). 그들은 자기 땅에 정착하여 다윗 왕의 통치 아래 하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22, 24절).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되리라(23절).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성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24절, 26절).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시리니 그 때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줄 알리라(26-28절).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국가적 종교적 존재의 정점으로 기대했던 황금시대의 언어입니다. 성취에 관한 모든 질문은 주어진 그림의 개별적인 특징이 아닌 전체 그림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희망에 대한 신약의 대답은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 교회는 많은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이제 알렉산더 씨,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나중에는 완전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새벽에 황금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행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경험에 따르면 과거의 많은 기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총만하고 최종적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미래 희망의 한 측면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선지자가 주로 메시아 왕국의 연합이라는 이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황금 시대였던 다윗의 연합 군주제의 역사적 선례에 기초한 미래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나는 그가 마지막 문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국가의 단결을 강조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영적인 패턴” 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로마서 11장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JB Payne - 복잡한 관점(분할 및 정복 접근 방식)

J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 Barton Payne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소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인용문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하단에 있는 에스겔 37:1-14의 5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 Payne은 망명에서 돌아와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52페이지 에 있는 페인의 첫 번째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 온 집 아래 있는 이 뼈들이 내가 무덤을 열리라 하였으니 이는 개인의 부활이 아니요 국가의 부활을 뜻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 란 전투에서 그들의 포로생활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른 뼈의 비전은 유배에서 돌아온 것이라고 Payne은 말합니다.

에스겔 37:15-22a에 가면 두 막대기에 “내가 이스라엘 산 위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유배에서 돌아온 후의 국가들의 연합으로 봅니다. 15-22a절의 두 번째 문단은 “두 국가를 통합하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지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고 설명하십니다. 성취는 기간 9, 즉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잃어버린 열 지파의 히브리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스겔 37:15-22a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의미합니다. 22b절과 24절은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르면 포로 생활로부터의 보답이 어떻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22b와 24절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페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Payne 아래 52페이지 하단의 세 번째 문단을 참조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급은 실제로 Millennial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며(요한복음 10장, 11장), 신약성경 이후부터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에스겔 37장 34절의 목자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희도 내 규례를 행하리라’ 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계통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초림의 성취(23절). 그런 다음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면 22a절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b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절이었고 또한 24절이었습니다. 이제 23절은 “ 그들이 다시는 그 우상과 가증한 형상과 모든 범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 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동안 다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Payne에서는 22a까지 유배에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으며, 22b

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가고, 23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린 유배에서 돌아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25절 상반절로 넘어가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리라” 고 말합니다. Payne은 25a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취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 진정한 영원한 국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다.” 25b절의 마지막 문구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인데, 여기서 그는 계속되는 성취를 봅니다. 초림은 성취를 시작하지만 25b에서 볼 수 있듯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26절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수를 늘리며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리라.” 그분은 복천년 성취를 보신다. 그 평화의 언약은 메시아의 미래 왕국의 헌법이자 천년왕국 성취입니다. 그리고 26b-28절은 성소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며 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는 그것을 천년왕국 성전으로 봅니다. Payne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이 모형을 통해 전달하는 신학적 증거는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더 이상 성전의 물리적 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28절의 성소에서 천년왕국 성전을 봅니다.  
 여기서 그는 그것을 40장 이하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과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봅니다.  
 비록 그가 천년왕국 성전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 40장이 그 특정한  
 성전을 묘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Payne이 이 예언의 다양한 특징의 성취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예언을 중단하도록 강요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초림이 있고, 그 다음 유배에서 돌아와서 미래의 상태로 점프하고  
 천년왕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있어 그런 종류의 해석 접근 방식은 본문의  
 흐름과 연속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앞이나 뒤의 것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고립된 단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언을 해석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흐름과  
 마찬가지로 구절을 해석할 때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페인의 접근 방식은  
 그것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24절과 그 이후  
 내용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를 찾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만들고 교회에서 성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특히 “내가  
 그들로 이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고 말하는 22-28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미래의 성취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한 국가로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필사자: Michelle Lee

Rough 편집자: Ted Hildebrandt

최종 편집자: Dr. Perry Phillips 다시 내레이션: Dr. Perry Phillips